

# 濁流清論

제63호 2021년 4월 27일

발행인: 박 만 규 / 편집: 편집위원회

## < 알려 드립니다 >

### ◇ 수시로 원고 접수합니다

탁류청론은 아주대학교 교수님들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교수님들의 원고는 교수회 공식 이메일(ajoufaculty@ajou.ac.kr)로 보내주십시오.

탁류청론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위의 메일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목 차

|   |    |
|---|----|
| <u>더불어 푸른 솔밭에서</u><br>담쟁이는 벽 앞에서 절망하지 않는다                 | 1  |
| <u>소통과 담론</u><br>2021학년도 교수회<br>총회 후기                     | 4  |
| <u>특집</u><br>2021 1학기 신입교원 소개                             | 5  |
| <u>교수들의 건강칼럼</u><br>코로나19 백신 접종                           | 11 |
| <u>저서 소개란</u><br>- 1980 한국 시인론 (문혜원)<br>- 미술 엔진을 달다 (박재연) | 13 |
| <u>소식</u><br>- 2021 월례 대의원회<br>- 2021 정기 총회               | 16 |

## 더불어 푸른 솔밭에서

# 담쟁이는 벽 앞에서 절망하지 않는다

아주대학교 교수회 의장 불어불문학과 박 만 규

### 좋은 대학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가장 간단한 대답을 하라고 하면 나는 서슴없이 ‘구성원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대학’이라고 답할 것이다. 만일 아주대학교가 좋은 대학이라면 학생들이 아주대생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낄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타교로 편입을 나가지 않을 것이다. 만일 아주대가 좋은 대학이라면 교수들도 타 대학으로 이직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현실은 그러한가?

### 우리는 기로에 서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에 사상 초유의 팬데믹 사태를 맞아 우리 학교는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들 가운데 상당한 사람들은 수도권 안전론에 몸을 숨기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학생의 질적 저하로 학교는 퇴보하게 되고, 이는 구성원의 자부심에 큰 상처를 내어 퇴보를 더욱 가속화하게 될 것이다. 교무회의에 보고된 자퇴생 통계가 이를 예고해 주고 있다. 1학년 자퇴생이 2018학년에 101명 (신입학 전체(2,157명)의 약 5%), 2019학년에 127명 (신입학 전체(2,163명)의 약 6%), 2020학년에 158명 (신입학 전체(2,179명)의 약 7%)으로 해마다 1%씩 증가하고 있다. 자부심 없이 다니는 학교에 과연 의미가 있을까?

### 자부심을 심어줘야 한다

현재 우리 대학은 어디쯤 가고 있을까?

언론사의 대학평가에 대해서는 찬반의 엇갈린 시선이 존재한다. 그것은 결코

우리 교육의 목표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러나 다만 현황 파악을 위한 하나의 참고점은 될 수 있으므로 살펴본다면, 다행히 중앙일보 대학평가의 경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16위부터 11위까지 상향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자조가 든다. 왜냐하면 이 평가 결과가 실제 입학 시장에 거의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입시생들과 학부모들이 선택하는 현재의 대학 서열을 만들고 있는가?

역사와 전통에 기반한 기존의 브랜드 가치 및 인지도, 지리적 위치 및 교통 여건, 그리고 공직 및 대기업 진출의 비율, 재단의 지원, 기부금, 향후 성장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것이다.

기존의 브랜드 가치와 지리적 위치는 어쩔 수 없는 고정 요소이지만 나머지는 교수, 학생, 본부, 재단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들이라 할 수 있다.

### 연결해야 한다

학교 발전을 위해서는, 결코 수도권 안전론 따위에 안주해서는 안 되고, 강도 높은 혁신을 해야 한다.

학교본부 입장에서는 위로부터 아래로 일사불란하게 적용하는 방식에 유혹을 느끼기 쉽지만 이런 top-down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결코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각 학과에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으므로 이들이 위로 올라가 실행성을 확보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 각 학과에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학과 간에 서로 교류해서 융합하고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본부는 그러한 자율적 교류를 보장하고 활성화시켜 주어야 한다.

요컨대 학교 내의 모든 구성 단위가 핏줄과 같이 서로 맞닿아 흘러야 한다. 미국이 오늘날 초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원동력 중 하나도 광활한 대륙의 각 지역이 서로 고립되지 않고 세세하게 연결된 덕분이었다. 이리(Erie) 운하 등 수로의 개통으로 내륙의 농산물이 대서양으로 이동할 수 있었고 증기선들이 미시시피 강을 따라 중부지역을 남북으로 연결했으며, 마침내 철도망이 독립 당시 동부 대서양 연안에 국한되어 있던 13개 주를 태평양 연안까지 연결함으로써 초강대국의 기틀을 잡았던 것이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시대이다. 학문간의 융·복합만이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시대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개개의 학과와 그 학과들의 교수들이 서로 촘촘히 연결되는 것만이 학교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다행히 우리 학교는 ‘연결지성’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각 학과와 부서들을 연결하는 데 얼마나 공헌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구호에 그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 우리는 우수한 학생을 길러내고 있는가?

벌써 일 년 넘게 이어지는 팬데믹 상황은 각 대학에 교육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안이하게 대처한다면 학생들의 학습수준이 저하될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학교의 퇴보를 초래할 것이다. 방역에만 집중하면 교육은 실종하는 무책임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고, 반대로 교육에만 집중한다면 자칫 감염 피해 확산이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된다. 방역과 교육 사이의 최상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고 이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팬데믹은 분명 위기이지만 오히려 다른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한다면 일거에 앞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를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가?

### 연구는 교수 개인의 일이 아니라 대학 본연의 임무이다

연구는 학교 발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최우선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연구성과가 좋으면 명성을 얻고 명성을 얻으면 좋은 학생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때문에 교수들은 연구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실제로 이에 관해 많은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기본적으로 업적평가라는 제도적 틀의 압박이 있고, 대학의 경쟁력 약화 책임을 오로지 교수에게 부가하려는 정부 당국의 압박이 있다. 후자의 압박은 학교 본부나 재단에 의해서 공유되기도 한다.

그러나 연구란 결코 교수 개인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연구에 참여하는 석·박사 학생들, 박사후연구원들과 같은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시설과 장비의 투자도 필수적이다. 이 같은 연구 인프라의 구축 없이 내부 경쟁만 높이다 보면, 연구

실적이 늘어나는 대신, 오히려 우수 연구인력이 더 나은 연구 환경이 있는 학교로 떠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이 벌어진다.

게다가 교수들은 연구뿐 아니라 교육에 있어서도 좋은 성과를 도출해야 하기에 자본과 시간의 효율적인 분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행정서비스를 통해 조절되고 지원되어야 한다. 특히 이점은 학교 본부가 신경을 써서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이다. 왜냐하면 현재 교수들이 이 점에 있어 한계점에 다다른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연구는 결코 교수 개인의 일이 아니라 대학 본연의 임무이다.

**세계 100대 대학은 세계 100대 부자 대학**

연구와 교육의 환경을 구축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재정적 투입이다. 세계 100대 대학은 세계 100대 부자 대학이라는 말이 있다. 대학의 위상은 그만큼 그 대학의 재정 상태와 직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최근의 우리 학교의 재정 운영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벌써 수 년째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학교 재단의 ‘법인부담금’이 매해 완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아쉬움을 주고 있는 대목이다. 이 미납분이 교비로 대납되고 있어 학교 살림의 어려움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 재단이 아주대학을 최고의 일류대학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과거의 전임 의장님의 말씀처럼, 우리 교수들은 재단이 이미 갖고 있는 그 법적인 권위보다 학교를 재정적으로 충분히 지원

함으로써 얻어지는 실질적 권위에 의지할 것을 기대한다. 이 기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재단의 오랜 모토에 근거한다. 이것을 원로 교수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고 이것이 아주대 교수들의 자부심으로 이어졌음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이제 자부심이다. 아주대 구성원 모두가 학교에 자부심을 갖도록 교수는 학생을 가르치고, 본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집행하며, 재단은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자.

담쟁이는 벽앞에서 절망하지 않는다.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리는 그것을 넘어 최고가 될 것이다.

아주, 화이팅!



소통과  
담론

# 시민적 결속의 점검: 2021년 교수회 온라인 정기총회 후기

교수회 총무 박구병(사학과)

아주대학교 교수회는 신구 집행부 간의 협의와 대의원회의 결정을 통해 2021년 3월 24일(수) 오후 4시 30분에 사상 첫 온라인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전 지구적 감염병의 상황이 진정되지 않은 탓이었다. 첫 시도이니만큼 3월 17일 같은 시간대에 예행연습을 거쳤다. 진행 장소로 선정 한 다산관 205A호는 자동녹화강의실로서 강의자의 움직임 추적하는 신식 카메라를 갖추고 있어서 출연자들의 입장파퇴장이 잘 조율되거나 적시에 이뤄지지 않으면 손발이 맞지 않는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팀처럼 보일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예행연습 덕분에 카메라의 과민반응을 최소화하면서 실수를 줄일 수 있었다.

3월 24일에는 참석 대상 644명(총인원 692명-부재 48명) 중 431명의 참석(실시간 비대면 참석과 현장 참여 인원 118명, 위임장 제출 313명)으로 교수회 정기총회가 성립되었다. 코로나 시국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참석 대상의 3분의 2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좋은 출발이라고 자평한다. 앞으로도 결속의 기회를 선용하고, 신임의장님이 강조한 대로 일석이조 이상의 효과를 거두기를 희망한다. 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노재성 교수님의 교수노조 결성 경험담을 청취하면서 교육 노동자이자 진료 노동자라는 의대 교수님들의 이중적 책무, 방학이 없는 현실과 몇 가지 고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고 대화와 교류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되었다. 교수회의 위상과 활동을 노조와 같이 더 적극적인 권익단체에 견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교회와 고대 아테네의 민회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단어는 에클레시아인데, 연간 최소한 50회 이상 모이는 교회나 40회쯤 모였다고 알려진 민회에 비한다면, 교수회의 정기총회는 그야말로 부담 없는 연례행사로 보인다. 어쨌든 총회는 다른 삶의 영역에서 비교적 고립된 채 지내는 교수 개인들이 시민으로서 서로 결속할 수 있는 공론장일 뿐더러 행정안전부식 표현을 빌리면 ‘비상대비태세 점검·훈련’인 셈이다.

행부의 첫 화두는 ‘과정형’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이번 총회의 순서 중 ‘슬기로운 융합 연구’의 취지는 과정형, 상호침투형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것이었다. 나아가 결과를 통보받고 뒤늦게 항의할 수밖에 없거나 결정사항을 추진하기만 하는 형편에서 탈피하고, 이번 총회에서 ‘AP(Ajou Premier) 10’에 관한 기획처장님의 브리핑을 듣고 질문을 던졌듯이 향후 기획 단계에서의 소통, 한 발 앞선 의견 수렴의 제도화 등을 요청하면서 학교 본부와 건전한 긴장과 협력의 관계를 이룰 수 있다면 좋겠다.

작년 말에 번역 출판된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 (영어 제목을 직역하면 능력주의의 폭정이다)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좋은 통치는 실천적 지혜와 시민적 덕성을 필요로 한다. 공동선에 대해 숙고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나 둘 중 어느 것도 오늘날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함양될 수 없다.”(□공정하다는 착각□, 와이즈베리, 2020, p. 164)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실천적 지혜(φρόνησις, phronesis)의 함양에서 꽤 멀어진 채 대학이 그동안 사회적 상승에 몰두하는 ‘인재들의 분류기’ 역할에 머물지 않았는지, 또 능력주의 질서의 방벽에 그치지 않았는지 대학 구성원들의 뼈아픈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아닐 수 없다. 그 책의 부제는 ‘공동선은 어떻게 되었는가’이다. 우리 대학 캠퍼스에서도 간섭 받지 않는 소극적 자유에 그치지 않고 욕망이라는 이름의 자유를 넘어 공동선을 추구하는 자유가 힘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코로나19 시대의 슬기로운 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에 매진하면서 학교 발전에 기여하는 동료 교수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며, 지성의 연결과 더불어 교수회를 통한 시민적 결속의 증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전임 제8대 집행부가 다져놓은 길을 따라가려는 신임 집

특집

## 2021 1학기 신입교원 소개 (가나다순)

## 응급의학교실 김종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부터 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 조교수로 임용된 김종현입니다. 저는 소아응급의학에 종사하며, 응급실을 찾아오는 15세 이하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군에서 외상 및 감염 관련 예후 예측, 초음파를 활용한 중증질환의 초기 선별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한, 응급진료 의사결정에서 인지적 과정에 대한 교육 및 인문학 또는 뇌과학 연구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아응급의학은 시공간적으로 제한된 응급실에서 별도의 시공간을 할애해야 하는 소아 청소년 환자의 의학적(때론 사회적) 문제를 파악하여,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신생 학문 분야입니다. 고령화된 한국 사회에서, 희소 가치가 큰 소아 청소년들은 의학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최근 저출산까지 겹쳐, 의과대학생들은 물론 의사들도 임상 경험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소아응급진료에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이 진료 과정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함으로써 의과대학생들과 의사들이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소중한 소아 청소년들의 진짜 문제를 파악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제가 이 일을 함으로써, 우리 대학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수단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원리와 사물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추구합니다. 학생 여러분과 자주 소통하고 배우며 성장하는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대학원 김태선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에서 새롭게 일하게 된 김태선입니다. 서는 서울대학교에서 교육상담을 전공하고, Ball State University에서 상담 심리로 박사 후에 UC Berkeley에서 2년간 인턴과 펠로우로 일한 뒤 한양대학교 교육학과와 상담심리대학원에서 2년 반 조교수로 일한 후 이번에 아주대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저의 주요 연구분야는 진로, 다문화, 상담자 교육입니다. 개인이 어떻게 진로를 선택하고 발전시키는지와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의 정체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개인의 행복과 일에 미치는 영향과 학교 맥락에서 어떠한 심리 교육과 상담이 필요한지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에도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새로운 환경을 익히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만 앞으로 여러 교수님들과 교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기를 기대합니다.

##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박용환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1년 3월 학기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조교수로 임용된 박용환입니다. 고려대학교에서 학부와 대학원을 모두 마치고 미국 국립 보건원 (NIH)에서 6년간 박사 후 연구원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한국으로 복귀해 기초과학연구원 (IBS)에서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던 중 좋은 기회를 주셔서 아주대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주제는 크게는 면역학이며 세부적으로는 감염이 없음에도 비정상적으로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열이 발생하는, 자가염증질환에 관한 것입니다. 다양한 자가염증질환 환자들의 발병 원인을 밝히고 퇴행성 뇌 질환 및 동맥경화와 같은 만성 염증이 원인이 되는 많은 질병들의 발병 메커니즘을 찾는데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염증을 억제할 수 있는 저해제를 찾아 치료제 개발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주대의 훌륭한 교수님들과의 협업과 교류를 통해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아주대학교의 위상이 더 높아지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처음 해보는 강의인데 학생들과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곧 좋아지리라 믿고 교육과 연구를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리학과 박정수

안녕하세요. 2021년 1학기 심리학과 신입교원이 된 박정수입니다. 아주대학교 99학번으로 학·석사를 아주대학교에서 마치고 국가보훈처 산하 중앙보훈병원 임상심리실 실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에서 박사, University of Michigan,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거쳐 모교인 아주대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성인 및 노인 임상심리 평가, 치료와 함께 박사 과정에서는 노화 고정 관념과 노화 준비에 미치는 요인들을 개인의 기능, 문화적 맥락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노화, 은퇴에 대해 더 연구를 하고자 Michigan 대학에서 진행하는 장기 종단 연구인 Health and Retirement Study에서 과거 개인의 삶에서 내린 결정들과 은퇴 이후 자신이 지각하는 성취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 교수님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는 한국에서 노인 관련 분야 연구에 선도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화학과 서성은

안녕하세요.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신입교원 서성은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어수선하고 힘든 시기에 아주대학교에 임용되어 앞으로 훌륭한 교수님들과 함께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를 할 것들에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함을 느낍니다.

저는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박사과정으로 유기화학을 전공했고, 유기합성 방법론, 유기반응 메커니즘, 생체 활성 분자의 합성 및 생물학적 응용 등의 연구들을 했습니다. 박사 후 과정은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촉매 반응연구를 주로 했고, 그 과정 중에 제약회사 Merck에서 신약개발을 위한 High-Throughput 합성 연구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아주대학교에서는 새로운 합성방법들을 개발하여 초기 Drug Discovery에 필수적인 화합물 라이브러리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생체 효소를 모방하여 비대칭성 저분자 유기분자 촉매를 개발하여 다양한 생물학적 응용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부족했던 제가 그동안 좋은 스승들을 만나 철저히 배우고 훈련하여 독립적인 연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저 또한 아주대학교 학부, 대학원 학생들을 빈틈없이 가르치고 실험 실습에 있어서도 철저히 훈련시켜서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향후 30~40년간 경쟁력이 있는 독립적인 화학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아주대학교의 여러 훌륭한 교수님들과 함께 팀웍을 발휘하여 학생들이 화학을 보는 전체적인 시야를 넓혀주고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동시에, 또한 전인교육에 입각하여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지도력을 갖추고 소셜네트워크킹을 잘 할 수 있는 인재들로 성장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자공학과 오일권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1년 3월부터 정보통신대학 전자공학과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오일권이라고 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마치고, 2년간 연세대학교 산업기술 연구소에서 2년간 박사 후 연구원으로 재직하였습니다. 이후, 2년 6개월 동안 스탠포드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재직하였습니다

저는 반도체 메모리 및 로직 소자와 이에 대한 반도체 미세 공정을 연구하였습니다. 국내외의 반도체 대기업들과 산학협력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반도체 미세화 패터닝, 증착, 에칭 공정과 새로운 구조의 반도체 소자를 제작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존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아주대학교에서 저의 연구를 여러 분야로 확장해 나가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학생들과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자공학과와 다른 학과의 교수님들의 조언을 잘 듣고, 함께 융합 연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아주대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저의 정착을 도와주신 여러 교수님들과 학과 및 본부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주대학교의 뛰어난 학생들과 훌륭한 선배 교수님들과 함께, 아주 가족으로서 사회와 대학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인문사회의학교실 이문재

안녕하세요.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신입교원 이문재입니다. 이렇게 지면을 통해 교수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의료경영을 전공으로 졸업했으며, 동 대학과 삼성융합의과학원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였습니다. 의료기기, 제약,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산업분석 및 경영전략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의학, 보건학, 경영학, 행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진과 융복합 연구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주대학교의 일원으로 학생들을 사랑으로 교육하며 융복합 연구를 위해 여러 교수님들과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학과 이유현

안녕하세요, 2021년 1학기에 아주대학교 행정학과에 임용된 이유현입니다. 이렇게 지면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2017년 1월 프랑스 파리 1대학교 팡테옹 소르본느에서 ‘한국과 프랑스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정책 비교연구’로 법학(Legal Science)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국책연구원, 지자체연구원, 대학 연구소, 국회 입법조사처 등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남대학교 행정경찰학부 행정학 전공 조교수로 근무한 후, 올해 3월부터 아주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지만, 다양한 직무 경험과 호기심은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구와 교육에서 전통적인 행정학 주제는 물론 기후변화, 에너지, 과학기술에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언니처럼, 누나처럼 아주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또 멀리 나아갈 수 있는 ‘언니 리더쉽’이 있는 교육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계공학과 이정호

안녕하세요? 2021년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교수로 신규 임용된 이정호입니다. 코로나-19로 탁류청론의 지면을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1999년 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에서 박사학위 후, 미국 University of Maryland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3년, 산업체 ((주)삼성코닝정밀유리, (주)포스코)에서 책임연구원으로 4년 일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에서 15년 간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관심 연구 분야는 열관리(thermal management) 분야의 연구로, 고발열 전력반도체와 같은 전자장비 냉각기술을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변화 열관리 기술을 적용한 Thermal Ground Plane(TGP)은 원천기술 개발에서부터 기술사업화에 이르는 전주기적 R&BD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산업체와 정부출연연구소에서 근무했던 20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Thermal Management Research Center를 개소하여 아주대학교가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열관리 분야의 산/학/연 협력을 주도하는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학부 및 대학원생의 교육에서도 졸업 후 사회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Engineering Tips를 전달하여 보다 살아있는 지식으로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생명과학과 이창한

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생명과학과에서 독립적인 연구자이자 교육자로서 새로운 캐리어를 시작하게 된 이창한입니다. 저는 KAIST 생명과학과에서 대장균에서 glyoxal이라는 친전자성 독성물질의 해독기작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이후 노벨의학상 선정 기관으로도 유명한 스웨덴 Karolinska Institute에서 병원균인 녹농균에서 단백질 항상성 조절인자를 찾고 규명하는 연구를 통해, 인간의 건강과 직결된 연구로 확장을 하였습니다. 이후 단백질 항상성 조절인자인 샤페론에 대한 유전학, 생화학, 생물리학적 지식을 넓히기 위해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 Howard Hughes Medical Institute에서 차세대 시퀀싱 기술과 단백질 안정성 센서를 결합한 방법을 이용한 새로운 샤페론을 발굴하고 그 분자적 기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세균의 단백질 항상성 시스템의 작동 기작을 밝히고, 더 나아가서 이를 표적으로 하는 세균 생장 조절 물질 탐색 및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쌓아온 연구와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훌륭한 연구와 교육을 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식물을 키울 때 '아주심기'라는 용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옮겨 심지 않고 완전하게 심는다는 의미로 모종을 밭에 심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지도하게 될 학생들이 사회에 완전하게 적응하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묘목을 훌륭하게 키운다는 마음가짐으로 학생들과 가깝게 소통하면서 훌륭한 교육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물리학과 임준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주대학교 물리학과 신입 조교수 임준원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고, 고등과학원에서 연구원,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에서 방문 과학자, 그리고 작년까지 서울대학교 강상관 계물질 연구단에서 연구 조교수 및 책임 연구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저의 연구 분야는 응집 물리 이론입니다. 고체 안에서 수많은 입자가 응집되어서 상호작용을 할 때 발생하는 초전도, 자성과 같은 물리 현상들을 이론적으로 탐구하는 분야입니다. 이러한 입자 간 상호작용은 매우 복잡하여 양자역학이 정립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고체 물리 분야에서는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넘쳐나고, 새로운 고체 물리 원리들이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어서 매우 역동적인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 특이 평평띠라고 하는 그래핀과 정반대의 성질을 가진 새로운 전자 구조를 제안하고, 이 시스템에서는 양자 거리라고 불리는 양자 정보학적 개념이 물성을 좌우한다는 연구를 하여 새로운 고체 물리 연구 분야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특이 평평띠 시스템은 새로운 시스템인 만큼 연구해야 할 물리적 특성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저는 제가 제안한 이 새로운 시스템에서 흥미로운 결과들을 많이 도출하여 비로소 새로운 연구 분야로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교수님들과 함께 아주인으로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어서 기쁘고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주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소프트웨어학과 조다정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정보통신대학 소프트웨어학과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조다정입니다. 이렇게 지면을 통해 아주대학교 교수님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무척 영광입니다. 저는 2018년 2월 연세대학교에서 공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프랑스 University of Paris-Saclay에서 1년, 독일 University of Kassel에서 1년 반의 박사 후 과정 연구를 수행한 후 아주대학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컴퓨터이론/계산이론 특히 정형 언어와 오토마타 이론을 전공하였습니다. 정형 언어와 오토마타 이론을 기반으로, 유전 서열 또는 바이오테이터에서 발생하는 삽입, 삭제, 치환 등의 바이오현상을 정형화하고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분자 결합 현상에 대한 정형 언어 기반 모델링과 복잡한 세포 대사과정의 수학적 모델링 및 분석 등 합성생물학 분야로의 확장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멘토로서는 알고리즘과 계산이론 지식의 전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론 분야가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면 쉽고 재미있는 분야라는 점을 느끼게 해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원리를 정확하게 깨우쳐 다양한 현실 문제에 적용하고 해결하는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교수님들의 고견을 새겨 들으며 학과와 학교의 발전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질 높은 융합 연구와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학과 안과학교실 최영준

안녕하세요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외안부파트 신입 교원 최영준입니다. 2020년 3월에 진료조교수로 입사하였으며 2021년 3월 전임교원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탁류청론을 통해 여러 선생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안과 중에서 각막과 외안부 질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브란스병원에서 안과 및 외안부 세부 전공 수련을 받았으며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에서 면역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학위기간동안 주로 사람에게서 유래된 샘플을 대상으로 multicolor flow cytometry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자가면역성 각막염 및 공막염 그리고 각막이식과 이식 거부반응 등, 면역 질환에 관심이 많습니다.

꼭 안과가 아니더라도 면역학연구에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연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상적으로도 많은 환자들을 도울 수 있는 좋은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루어 주신 좋은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코로나 백신접종 이야기

의과대학 내분비대사내과 김 대 중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 팬데믹을 선언한지 1년이 지났다. 작년 12월부터 백신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3월 31일까지 전세계 3억3천만명이 백신을 맞았는데 4.3%수준이고, 우리나라는 좀 늦어 87만명, 1.7%에 그치고 있다.

인류의 역사에 감염병의 대유행은 변곡점이 되곤 했다. 페스트가 암울한 중세를 거쳐 근세로 넘어가는 계기를 만들었고, 1918년 스페인독감도 인류는 슬기롭게(?) 극복해냈다. 지금 코로나19라는 새로운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미국이나 영국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유럽도 갈팡질팡하고 백신을 필요한 나라로 수출되는 것을 막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어둠 속에 희망도 보고 있다. 과학의 발전이 1년 만에 백신이라는 선물을 주고 있다. 작년 초 중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의 유전자 정보를 공개하자마자 전세계 백신 관련 회사들이 백신 개발에 착수했다. mRNA나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물질을 우리 몸으로 전달하고 항체를 만들도록 해냈다. 물론 수십년들이 연구에 몰두했던 회사들이 만들어낸 쾌거다. RNA 바이러스의 특성상 계속 변이바이러스가 만들어질 것이고 기존의 백신에 저항하는 바이러스가 나올텐데, 바이러스만 얻을 수 있다면 금방 다시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니 백신 역사의 신기원이라 할 수 있다.

백신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백신접종은 사회학, 심리학, 철학의 영역이다. 일년 내내 우린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하여 가짜 뉴스와 왜곡보도, 유언비어로 혼란과 소모적인 논쟁에 시달려야 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그 갈등은 더 심해지고 있다. 백신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 중에서 어떤 것을 취할지는 결국 개인이 선택할 몫이지만, 무고한 사람들이 괜한 걱정과 고민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

정부가 방역을 총괄하면서 백신접종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계속 백신 계약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백신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특정 백신에 대해 과도한 불신을 조장하면서 국민을 혼란에 빠지게 했다. 정부가 60-70%의 국민이 면역을 가져야 집단 면역을 얻어낼 수 있다고 국민을 설득하고 있다 보니, 마치 ‘정부를 위해’ 백신을 맞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일부 사람들은 “왜 내가 백신을 맞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나”고 접종을 반대하고 있다. 이 정부가 잘 되는 꼴을 볼 수 없어 끊임없이 백신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것도 느껴진다. 대통령이 백신을 맞는 모습을 보도한 것에서는 백신을 바꿔치기 했다고 망상적 사고를 하는 사람도 있다.

백신은 본인을 위해 맞는 것이다. 65세 이상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본인과 배우자를 위해 백신을 맞는 거다. 치명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혹시 밖에서 코로나 걸려오면 배우자까지도 위험해진다. 물론 나이가 많은 분들은 접종 동의율이 높다. 하지만 언론에서 너무 백신과 중증 부작용(사망과 혈전) 얘기를 해대니 무서워한다. 무책임한 언론과 안티백서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 코로나 걸릴까 무서워 아무 데도 못 다니면서 살 것인가? 가까운 데라도 마음 편하게 가려면 면역이 필요하다. 해외 여행이라도 가려면 더욱 그렇다. 가족이 모여서 밥이라도 편하게 먹으려 해도 백신접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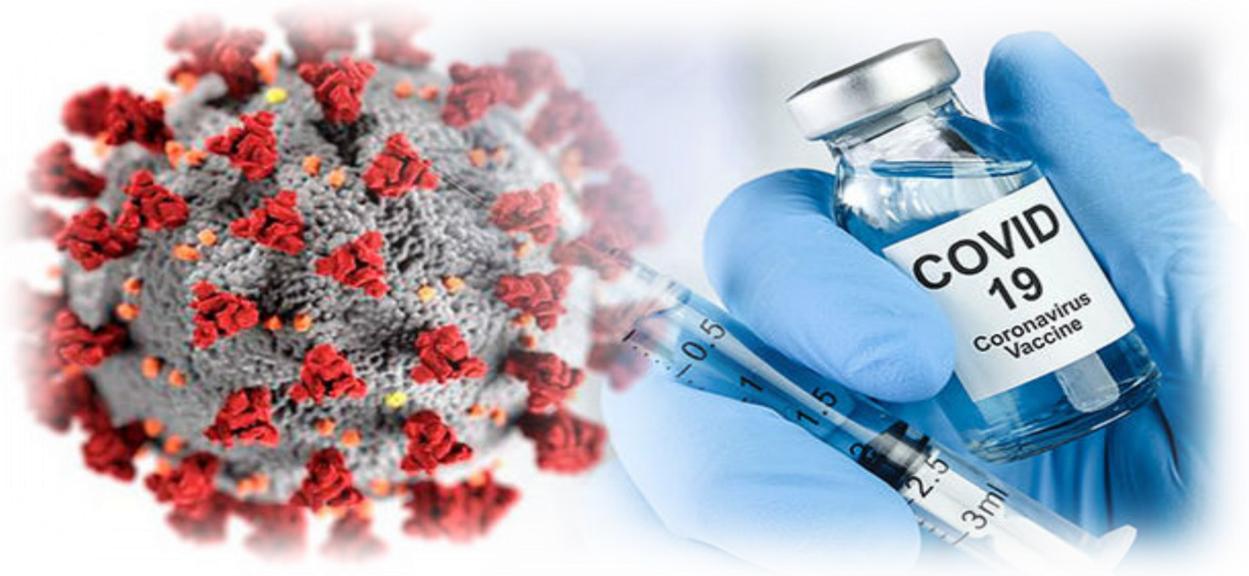
## 코로나 백신접종 이야기

의과대학 내분비대사내과 김 대 중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정말 “왜 내가 남을 위해 백신을 맞아야 하느냐”고 묻는다. 비과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도 많이 본다. 우리 머리에 마이크로칩을 심으려 한다는 생각까지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지만, 우리 DNA에 문제가 생긴 다거나 임신을 계획하고 있으니 안 된다는 비과학적 사고를 하고 있다. 특정 백신에 대해 과도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백신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맞을 수 없다고 한다. 물론 젊은 사람들은 코로나19 걸려도 아무 증상 없이 지나갈 수 있으니 필요성을 덜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밖에 나갔다가 바이러스를 가지고 들어오면 부모나 조부모는 종종 코로나에 걸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때로는 직장을 망가트릴 수도 있다. 최우선 순위로 백신을 맞을 기회를 제공했는데 의료인들이 백신을 맞지 않는 걸 보면 안타깝다. 개인은 다 사연이 있겠지만, 혹시 나로 인해 병원에 있는 입원 환자나 동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왜 하지 못할까? 혹시 90% 이상 접종을 할 테니 조용히 있다가 집단면역에 무임승차를 하겠다는 생각이었을까?

드디어 우리 정부의 입에서도 백신여권 얘기가 나왔다.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갈 때 필요한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일상 생활에서도 요구받을 수 있다. 식당에 출입할 때도 헬스장에 들어갈 때도 심지어 직장에 출근할 때도 필요할 수 있다. 한 4-5년 후로 시간여행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현명한 것일지 알겠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은 코로나 팬데믹과의 싸움에서 그나마 현명한 선택을 하려면 집단지성을 동원하는 게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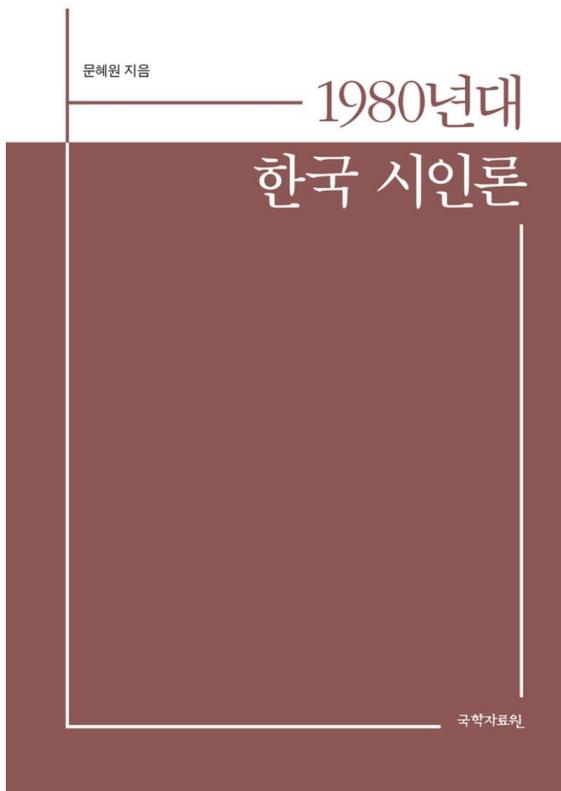
개인의 자유와 공리주의적인 접근이 충돌하는 상황이라는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백신접종이 답이다. 기회가 되면 감사한 마음으로 백신접종에 협조하길 바란다.



저서  
소개란

## 1980년대 한국 시인론 (저자 문혜원)

문혜원, □1980년대 한국 시인론□, 국학자료원, 2021.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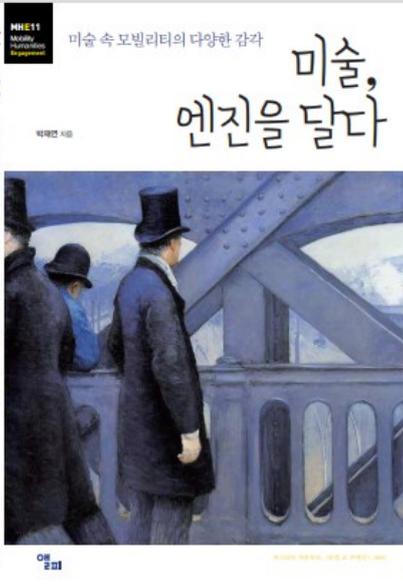
1980년대는 언어 실험과 내면의식을 강조하는 시들과 현실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주제로 하는 시들이 공존하는 시기였다. 광주민주화운동은 80년대 시인들의 부채의식의 근원이자 창작의 원형으로서, 현실 비판의 중심 주제일 뿐만 아니라 언어 실험과 자아 분열의 근본적인 계기를 이루고 있다. 이는 어느 누구도 시대 현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80년대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시대적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인 20명에 대한 시인론이다. 이성복, 황지우, 박남철, 최승자, 곽재구, 정호승, 도종환, 김용택, 안도현, 고희철, 박노해, 백무산, 김광규, 최승호, 이하석, 이문재, 문인수, 김승희, 고정희, 김혜순 등이 그 시인들로서, 이들은 대체로 1950년 전후에 출생하여 1970년 중반~1980년대 초반에 등단했고, 1980년대에 1시집을 내고 왕성한 시작 활동을 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작품을 민중시와 실험시 같은 이분법적인 틀로 나누지 않고, 그들이 추구했던 다양한 개성을 살리고자 했다.

1980년대 시에 대한 연구는 한국시문학사를 다룬 책들에서 하나의 장으로 논의된 적은 있으나, 독립된 단행본으로 출간된 적은 없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1980년대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서이다. 특정한 경향이나 문단의 분파를 나누지 않고, 시와 시인 자체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여 각각의 특징과 개성을 살려내고 있다. 또한 각 시인별로 등단부터 2021년 현재까지 발간된 시집 전체를 텍스트로 하여 시세계의 특징과 변화 과정을 면밀하게 살핌으로써, 각 장이 독립적이고 완결된 시인론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도 두드러진 장점이다. 각 시인의 시적인 변화와 발전 과정은, 1990년대 이후 한국시의 전개 과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횡적으로는 1980년대 대표적인 시인들에 대한 연구이면서 종적으로는 1980년대 이후 한국 시사의 흐름을 요약하여 보여주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해당 시인들의 중요 시들을 전문 수록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작품을 직접 읽을 수 있게 하고, 동시에 강의 교재로서의 편의성을 갖추도록 하였다.

저서  
소개란

# 미술, 엔진을 달다 (저자 박재연)



안녕하세요, <탁류 청론>의 새로운 편집위원을 맡게 된 문화콘텐츠학과의 박재연입니다. 교수님들의 다양한 사유와 흥미로운 아이디어, 유익한 지식이 담긴 저서를 선보이는 새로운 코너를 열면서 부끄러운 마음 반, 떨리는 마음 반으

로 제 첫 저서를 소개해봅니다. 개척은 곧 불안정과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내 땅을 확보하고, 지키고, 일구는 것이 중요했던 근대 이전의 사회에서 땅을 버리고 돌아다니던 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객사라는 단어뿐이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멀리 떠나 보고자 했던 자들은 그러한 욕망을 지녔다는 사실만으로도 버거운 삶을 살아야 했지요.

하지만 18세기 후반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 서 모빌리티적인 삶은 새로운 시대의 흐름이 되었고, 역마는 살이 아닌 운으로 바뀌었습니다. 미술 역시 이 시기를 기점으로 큰 변화를 맞게 되지요. 특정 시점을 고정시켜 제작된 근대 이전 재현적 미술representational art은 사진기와 활동사진, 영화 등의 기술 발전을 활용하며 새로운 시간성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대상의 움직임을 화면에 지속시키는 비재현적 미술non representational art이 현대미술의 주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로 제 첫 저서를 소개해봅니다.

모빌리티인문학 총서 중 하나로 발간된 《미술, 엔진을 달다》는 모빌리티라는 열쇳말로 풀어 본 근현대 미술사이자, 시각예술 작품을 매개로 모빌리티의 역사를 추적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술과 모빌리티의 상보적이고 흥미로운 결합을 위해 윌리엄 터너부터 소수빈까지, 200년이 조금 안 되는 시기에 걸쳐 스무 명의 아티스트를 꼽았습니다. 단순히 모빌리티를 소재로 해서 작업을 한 작가들을 추려서 소개하기보다는, 그들이 시각적으로 해석한 모빌리티가 어떻게 근현대 사회 변화와 촘촘하게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를 보여 주고자 했습니다.

증기기관차가 뿜어 대는 검은 연기로 시작하는 책의 전반부에서는 산업혁명과 함께 본격적으로 형성된 근대적 모빌리티가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정신세계에 끼친 영향에 대해 살피고자 했으며, 후반부에서는 근대화라는 미명하에 그간 당연하게 이루어져 온 일방적인 모빌리티 확장에 대한 비판적이고 자성적인 작업들을 분석했습니다. 무엇보다 그간 대부분의 미술사 담론이 기본값으로 여겨왔던 ‘서구 백인 남성 작가들의 미술사’를 보완 하여 젠더와 인종, 문화권과 지역 차원의 빈틈을 메우는 데 신경을 썼지요. 터너, 모네, 뒤상, 리히텐슈타인 등 앞부분에서 다룬 작가들에 비해 다소 낯설게 여겨지는 수보드 굽타, 할릴 알틴테레, 아델 압데세메드, 에스더 마홀랑구, 오스본 마차리아 등의 이름은 좀 더 균형 잡힌 미술사 서술을 위한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가끔 어머니로부터 제 사주에 역마가 들었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맛이었을까요. 고등학교 기숙사 입소를 시작으로 일찌감치 집을 떠나 서울로, 파리로, 많이도, 오래도 돌아왔죠. 어머니께서는 당신 옆에 끼고 살지 못하는 큰딸에 대한 걱정과 염려, 서운함을 털어내기 위해 “요새는 사주에 역마가 좀 들어야 좋지.” 라는 말도 잊지 않고 덧붙이셨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다가온 전례 없는 부동성의 시대, 모빌리티와 예술에 대한 스무 개의 사유를 담은 이 책이 ‘이동하는 인간’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데 신선한 자극이 되기를 바라며, 《미술, 엔진을 달다》출발 신호를 보냅니다.

역마의 기본 의미는 변화와 변동을 향한 강한 힘입니다. 정착과 정주가 생존의 기본 조건이었던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역마는 살煞로 불렸죠. 변화와 변동, 이주와



## 소식

### 교수회 소식

#### 교수회 제 110차 월례 대의원회 개최

지난 3월 22일 월요일 교수회 제 110차 대의원회가 다산관 110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다음 제 111차 월례 대의원회는 4월에 개최 예정입니다. 앞으로 교수회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2021년도 1학기 정기총회 실시

지난 3월 24일 월요일 16시 30분부터 18시까지 다산관과 Zoom(비대면)에서 2021년도 교수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정기총회에는 의대를 포함한 아주대학교 교수님 117분이 참석해 주셨으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위임장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교수회 박구병 총무의 사회로 정기총회는 시작되었으며, 박만규 의장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교수회 결산보고는 배포된 자료로 대체되었으며 2년 간의 임기를 마친 김상배 교수님의 인사말 및 감사패 증정식이 있었습니다. 신임 의장의 인사말로 정기총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편집위원회: 윤호섭(편집책임)

김성환, 박재연, 배상석, 정태선, 최영화

